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02월 20일(月) : 주간회의(11시)
- 02월 22일(水) : 진안자활센터 업무협약식(11시)
- 02월 22일(水) : 연구원 야간강좌(송사 기우만 행장)

■ 연구원 소식

○ 서경식 교수 초청 강연 안내

: 우리 연구원과 공동사업 기관인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2월 21일 오후 3시부터 도교경제대 서경식 교수를 초청하여 아우슈비츠 수용소 생존자로 세계적인 '증언문학' 작가 중 한 사람인 프리모 레비(1919~1987)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일동포면서도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고 지금도 동아시아 평화와 소수자 인권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경식 교수와 귀한 시간 나누시길 권해드립니다.

◆ 일 시 : 2017년 2월 21일(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 장 소 : 전주대학교 진리관 109호

강연에 앞서 오후 1시부터 강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큐 영상 『ETV2003 아우슈비츠 증언자는 왜 자살했나-작가 프리모 레비를 찾아서』(NHK, 2003, 한글자막)을 관람하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가능하신 분은 1시부터 참석 부탁드립니다.

○ 한국고전학연구소·연구원, 호남인물·전북의병장 사료읽기 야간 강좌

: 한국고전문학연구원 야간강좌는 매주 수요일에 실시됩니다. 강의는 김건우 이사(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가 한지산업관 202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독 교재로는 『송사 기우만 행장』을 강독할 예정입니다.

※ 야간 강좌의 문은 항상 열려있으니 매주 수요일 16시까지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 국립전주박물관 특별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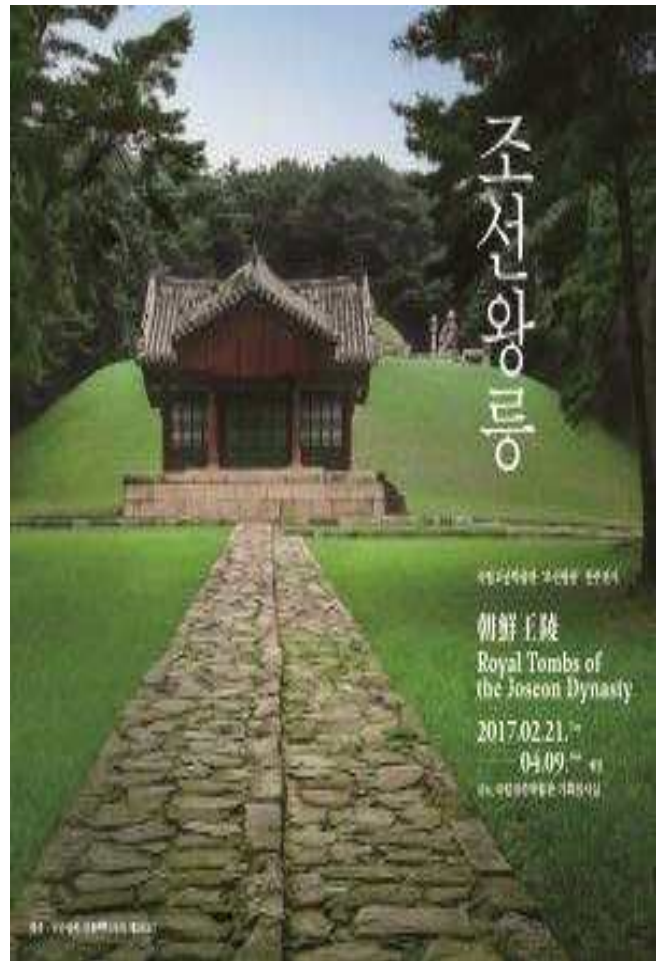
“조선왕릉, 왕실의 영혼을 담다”

- 기간 : 2017.02.21.(화)~04.09(일)

- 장소 : 국립전주박물관 기획전시실

: “조선왕릉, 왕실의 영혼을 담다” 전시전은 우리 연구원 최나래 회원이 재직중인 국립고궁박물관의 2016년 상반기 특별전을 전주에서 진행하는 전시회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조선의 왕실문화와 통치철학, 국가이념의 결정체인 조선왕릉이 다양한 유물, 자료와 함께 소개된다. 또한, 조선 왕릉에 속하지는 않지만 전주에 남아있는 태조의 시조 이한과 부인 경주 김씨의 위패를 모신 조경묘와 이한의 묘역으로 전해지는 조경단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최나래 회원이 2월 24일~25일 양일간 직접 국립전주박물관을 찾을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람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연구원 신규회원 가입

: 이번 주에도 우리 연구원에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살고 계시는 유민형님입니다. 온 마음을 모아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몸거리가 마음거리라는 말이 무색하게 가깝고 그윽한 관계 계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연구원 사무국 워크샵 진행(2월 14일~15일)

: 2017년 새해를 맞아 연구원 사무국장, 행정실장, 연구실장, 자료간사가 여수에서 워크샵을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예정 사업을 점검하였고 향후 연구원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동학 행정실장 / 김남경 자료실장 대학원 졸업(2월 16일)

: 바쁜 연구원 사업 와중에서도 묵묵히 우리 역사 공부의 한길을 갔던 이동학, 김남경 두 실장이 2월 16일에 드디어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식을 치렀습니다. 더디갈 뿐 못 갈 곳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두 분께 뜨거운 축하 전해드립니다.



○ 정읍시립국악단과 협약체결(2월 16일)

: 2월 16일에 우리 연구원과 왕기석 이사가 단장으로 재직중인 정읍시립국악단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후 양 기관은 공동사업을 비롯하여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사업을 모색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또 늦었지만 지난 10주년 기념 우수회원으로 선정되었던 왕기석 이사께 연구원 식구들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도 함께 했습니다.



○ 왕기석 이사 방송 출연 안내(2월 26일)

: 우리 연구원 왕기석 이사가 2월 26일(일) <<전주 MBC - "얼썬! 우리가락" >>에 출연할 예정입니다. 일요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람 바랍니다.

○ 광주·전남 회원모임(2월 28일)

: 광주·전남에 살고 계시는 회원 분들과 2017년 사업을 공유하고 새해 다짐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는 2월 28일 광주시 광산구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에 거주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자리에 함께 하고 싶은 회원들도 격렬하게 환영하오니 편안하게 함께 하여주시시오. 차량도 준비되었으니 부담 없이 사무국에 연락주시면 됩니다.

◆ 일 시 : 2017년 2월 28일(화), 오후 5시부터

◆ 장 소 : 낮엔 밥상 저녁엔 술상(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654-7)

■ 옛 詩와의 만남

뉴스레터에 분재되고 있는 당시(唐詩)는 유명봉 회원(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께서 2009년 범한서적을 통해 출판한 도서 “당나라 시인들을 만나다”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 게재하고 있습니다. 당나라의 시세계를 안내하기 위해 당나라 시인들의 삶을 평전형태로 소개하고 있는 이 도서는 시판중이니 서점을 통해 접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 품

청계(靑鷄)

言入黃花川(언입황화천)
每逐靑谿水(매축청계수)
隨山將萬轉(수산장만전)
趣途無百里(취도무백리)
聲喧亂石中(성환란석중)
色靜深松裡(색정심송리)
漾漾汎菱苳(양양범릉행)
澄澄映葭葦(징징영가위)
我心素已閒(아심소이한)
淸川澹如此(청천담여차)
淸留盤石上(청류반석상)
垂釣將已矣(수조장이의)

맑은 시내

황하천에 들어가려면
항상 푸른 시내로 가야 하는데,
산 따라 만 번 굽어 돌지만
흘러가는 길은 백리도 아니 되네.
어지러운 돌 사이로 시끄러운 소리
깊은 숲속에 고요한 빛
출렁이는 물 위에 마름 잎 떠다니고
맑디맑은 수면에 갈대 그림자 비치네.
내 마음 이미 한가함에
맑은 물도 이처럼 고요하니,
너럭바위 위에 머물러 앉아
낙숫대 드리우면 그만이라네.

■ 작자소개

- 왕유(王維; 699~759). 당나라 때 저명한 시인이며, 화가로 시, 음악, 그림에 뛰어난 재주를 보였다고, 남종화의 시조로 알려져 있다. 남종화는 문인화가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화풍으로 개인적인 감정 표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는 여러 가지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다양한 표현양식을 채택하였으나, 산수화를 발달시킨 최초의 사람 중의 하나로 특히 유명하다. 그는 자연의 정치와 한가로운 전원생활을 노래한 시인으로 이백(701~762), 두보(712~770) 등의 유명한 당대 시인들과 함께 서정시 형식을 완성한 시인으로 손꼽힌다.

■ 감 상

- 이 시는 天寶의 난을 겪을 당시 왕유가 지은 것으로 난중에 사대부로서 안록산에게 협력한자가 많았다. 왕유도 한때 적군에게 붙잡혔으나 양을 먹어 병어리가 되었다고 하면서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시를 지으며 신세를 개탄하였다고 한다. 봄의 계수나무와 문답하는 형식으로 읊은 작품으로, 봄이 와 복숭아와 자두 꽃이 만발하는 등 이르는 곳마다 삼라만상이 봄을 구가하는데, 오직 계수나무 너만은 꽃을 피울 줄도 모르고 잎사귀만 무성한가 하고 물었다. 계수나무가 대답하기를 “그까짓 도화 이화 같은 꽃이 얼마나 오래 갈까, 가을 되어 풍상이 섞어치고 많은 나무들이 낙엽 지는 때 나 홀로 꽃 피움을 당신들은 알고나 있소” 한다.

■ 역사속의 오늘

○ 그때는 동방의 모스크바였다. 그때는... - 1960년 2월 28일

1946년 10월 항쟁부터 대구의 좌익세는 강력했고 한국전쟁으로 좌익이 싹쓸이된 뒤에도 도시 분위기는 진보적이었다. 1960년 대통령 선거. 유력한 야당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 급서하자 이승만에 반대하던 많은 국민들은 실의에 잠겼다. 신익희는 호남선 열차에서 쓰러졌고 조봉암은 이승만이 죽여 버렸다. 그런데 희망은 작게나마 남아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의 나이 여든을 넘었으니 어느 날 아침이건 못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부통령이라도 야당 후보를 당선시킨다면 희망이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자유당 정권도 이를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은 철저한 부정선거에 나선다.

일요일이었던 1960년 2월 28일 대구 시내 고등학교에 일제히 등교령이 떨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구에 많았던 섬유공장 노동자들에게도 출근령이 전달됐다.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바로 전날 토요일에 급작스럽게 단축수업을 실시하거나 조기퇴근을 시키더니... 이유는 간단했다. 토요일은 자유당 대구 유세였고 일요일은 민주당 대구 유세였던 것이다. 어떻게든 그 유세장에 갈 사람들의 발목을 잡아놓으려는 정권의 알팍한 술책.

경북고등학교는 갑자기 시험을 앞당겼고 대구상고에서는 난데없는 졸업식 송별회 연습이 거행됐다. 대구여고에서는 어설픈 무용대회가 펼쳐졌고 별안간 떨어진 소집령에 학생들이 반발하자 그럼 영화라도 보자고 애걸하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 가운데 으뜸은 대구고등학교였다. 대구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유달리 자연친화적이었던지 이날 '토끼사냥'을 핑계로 제자들을 불러냈다. 몽둥이 하나씩 들고 산자락을 뛰어다니라는 것이었다. 이날 시위에서 대구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격렬하고 전투적일 수 있었던 것이 선생님들의 '토끼사냥' 덕이었다는 후문도 있다.

자유당 정권의 얼척없는 행동에 학생들은 분노한다. 이기 뭐고? 2월 27일 토요일, 경북고등학교 학생회 부회장 이대우, 대구고등학교 학생회장 손진흥 등 대구 시내 학교 대표 7-8명이 이대우의 집에 모였다. 아직 여드름 자국이 가시지 않은 '고딩'들. 그러나 그들의 각오는 사뭇 비상했다. "이거 하고 나면 우리는 퇴학은 물론이고 감옥에 갈텐데 감옥 갔

다 와서 취직은 우예 하고 뭐하고 먹고 사노.” 그러던 그들은 뜻밖의 노래로 의기투합하게 된다. '유정천리'. (대구일보 김풍삼 고문 증언) “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수 심는 두메 산골 내 고향에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눈물 어린 보따리에 황혼빛이 젖어드네” 즉 감옥 가고 취직 안되고 인생 조질 거 같으면 두메 산골에 들어가 감자라도 심으면 될 거 아니냐는 뜻이었다.

다음날 손진흥은 진창밭이 된 길을 자전거를 킁킁거리고 각 학교를 돌아다니며 시위 결정을 재확인했다. 교사들의 만류가 완강해 시위가 무산된 곳도 있었지만 경북고등학교 학생들은 거리 진출에 성공했다. **“인류 역사 이래 이런 강압적이고 횡포한 처사가 있었던고, 근세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야만적이고 폭압적인 일이 그 어디 그 어느 역사책 속에 있었던가? 이 민족의 울분, 순결한 학도의 울분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피 끓는 학도로서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1인까지 부여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려다.”**(선언문 중) 대구 중앙로를 내달리면서 그들은 부르짖었다. “일어서라 동방의 햇불들아!” “학원을 정치도구화하지 말라.”

그렇게 2.28 시위가 대구를 강타했다. 이 시위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다. 그 두 달 뒤 이승만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4.19 시위의 전초라는 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후 반세기 가까이 한국 사회를 진동시켰고 전세계적으로 위력을 찾기 어려운 학생 운동의 시발이라는 점에서도 그랬다. 한국 '청년학도'의 깃발을 처음 들어 올린 것은 시대를 고뇌하던 명문대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들이었다.

시위는 다른 시위로 이어지지도 않았고 시민들이 그 시위에 뛰어들지도 않았으며 이승만 정권을 여전히 강고해 보였고 학생들은 무더기로 잡혀가고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그 사소해 보이는 불뚱들은 이미 바짝 말라 버린 들 위로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그 불뚱들은 3.15 부정선거라는 기름 세례를 받으며 불길로 화했고 불길은 들불로 타올라 이승만을 하와이로 가게 만들었다. 2월 28일의 대구가 없었으면 3월 15일의 마산이 없었고 3월 15일의 마산이 없었으면 4월 19일의 한국이 없었을 것이다. 적어도 1960년 2월 28일의 대구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였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동방의 모스크바였고 시대의 변곡점이자 시발점인 도시였다. 1960년 2월 28일 대구는 위대했다.

간편하게 먹는 건강한 한끼
구수함은 기본, 더 건강한
3가지맛 누룽지

쌀 / 현미 / 보리



김제평야의 질 좋은 쌀과 현미, 보리로 만든 - 금싸락누룽지

드넓은 김제평야에서 자란 간척지 햅쌀과 현미, 보리로 정성껏 만들기에
더욱 고소한 맛과 함께 건강을 가득 담은 바삭하고 고소한 영양식입니다.

■ 금사락 누룽지 판매 가격

종류	규격	가격		비고
		정상가	할인가	
금사락 누룽지	150g*10봉	23,000	21,000	
	150g*20봉	44,000	42,000	
	200g*10봉	27,000	24,000	
	200g*20봉	52,000	48,000	
	3kg	33,000	30,000	
	750g*2봉	19,800	18,000	
	750g*4봉	39,600	36,000	
	750g*6봉	59,400	54,000	
금사락 현미 누룽지	150g*10봉	28,000	25,000	

※ 연구원 심범식 회원이 직접 생산하는 맛있는 누룽지입니다. 설 이후에도 연구원 회원 들께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택배비 : 3,000원(40,000원 이상 주문시 택배비 무료)